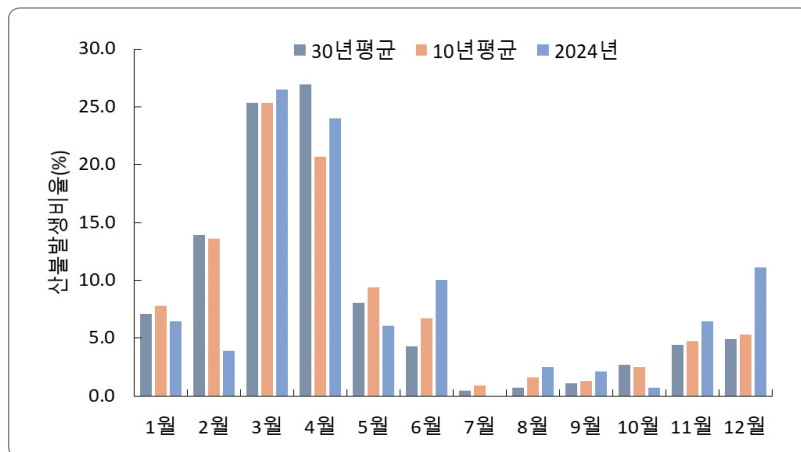


Q9 | 산불의 연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나요?

A 최근 겨울철에도 평균기온이 높아지고,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위험이 증가하였습니다. 산불은 주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집중되었지만, 최근 겨울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12월과 1월에도 평균 산불발생건수 (1990년대: 38건 → 2000년대: 57건 → 2010년대: 52건 → 최근 5년: 75건)가 늘어나고 산불이 발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또한 “아카시 꽃 피는 5월 이후엔 산불이 나지 않는다.”란 말이 있습니다. 나무들이 물을 머금어 수분함량이 많아지고 녹음이 짙어지는 5월 이후엔 산불이 나더라도 크게 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. 달리 해석하면 이 말에는 ‘5월까지의 산불이 많이 난다’는 의미가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 정설이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즉, 산불 연중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최근 10년 5~6월 산불발생건수가 882건으로 전체 산불 중 16.2%를 차지하였으며, 산불조심기간 외에도 산불발생 비율이 28.3%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. 또한, 산불발생일수도 증가(2000년: 136일 → 2010년대: 143일 → 2020년도: 161일)하고 있습니다.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후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산불조심기간 외 여름철, 겨울철에도 산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산불이 연중화 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



< 월별 산불 발생 현황 >

※ 출처 : 산림청 산불통계